

“문재인 케어·보험료부과체계 성공이 목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 취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전 국회의원이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임기 내 달성 목표로 ‘문재인 케어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 성공을 꼽았다. 그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보험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와 인프라 확충에 주력하겠다”면서 “공단의 조직 변화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6일 전 문지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보이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보건의료계와 공단의 갈등 관계를 접고 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겠다”면서 “최대 화두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모든 질환에 급여 보장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낮은 수가는 올리고 비급여는 낮춰서 합리적 가격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가 갈등관계로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급여가 다 들어오고 수가가 원가 플러스 알파면 의료계와 싸울 일이 훨씬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비합리적인 수가가 사라지고 합리적으로 수가가 되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건강보험과 보건의료계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반을 다지는 게 문재인 케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수가 급여기준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과정을 넘어서서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가를 보는 관점을 비용절감을 위해 깎아 내리는 것으로 보서는 안 된다. 정부와 당사자를 설득해



비용절감과 의료서비스를 정상화하는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건강보험의 미래 지속성 역시 김용익 이사장의 큰 숙제 중 하나다. 그는 “건보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 연구조직 구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다. 보건의료인과의 협의도 거쳐서 방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효율적 운영과 인프라 확충을 위해 “건보에서 시야를 넓혀서 제약, 유통 인프라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고 파트너십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올해 대규모 신규 직원 채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인력 선발과 조직 구성, 훈련을 통해 좋은 행정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